

보도일시	2022.8.29.		총 4쪽(붙임 2쪽 포함)
배포일시	2022.8.29.	담당부서	주일한국문화원
담당자	전시팀장 하성환, 홍보팀장 조은경(+81-3-3357-5970) postmaster@koreanculture.jp		

야나기 무네토시에 대한 새로운 연구조사 주일한국문화원에서 발표 9.14 ~ 10.1 '야나기 무네토시의 마음과 시선'전 개최

주일한국문화원(원장 공형식, 이하 문화원)과 일본민예관(관장 후카사와 나오토, 이하 민예관)은 9월 14일(수)부터 10월 1일(토)까지 약 2주 간에 걸쳐 '조선과 그 예술 간행 100주년 기념 야나기 무네토시의 마음과 시선 ~ 일본민예관 소장 자료를 통하여 본 조선미술'전을 문화원 1층 갤러리MI에서 개최한다.

야나기 무네토시(柳宗悅, 1889~1961)는 일본을 대표하는 사상가이자 미술사학자로 귀족이 즐기는 미술 '관예'에 반대하여 일반인들이 널리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어야 한다는 '민예'사상을 제창해왔다.

그는 1914년 아사카와 노리타카(淺川伯教, 1884~1964)가 저택을 방문하며 선물로 가져온 조선시대의 '청화백자초화문항아리'와의 만남을 계기로 조선의 미술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이후 3·1운동 당시 무력진압을 진행한 일본을 사과하는 '조선의 벗에게 드리는 글'을 발표하고 조선총독부가 신청사 설립을 위해 광화문을 철거하려고 할 당시에는 '잃어버릴 지경에 처한 조선의 한 건축물을 위하여'를 발표하여 항의하는 등 조선의 아름다움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또한 도쿄 고마바에 민예관을 건립하여 현재까지 그 당시에 구입한 조선시대의 공예품들을 보관하고 소개해 오고 있다.

이번 전시회는 2019년부터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하 재단)의 지원을 받아 민예관과 도쿄예술대학 미술학부 공예사 연구실에서 연구조사를 진행, 새롭게 발견된 자료와 조사결과를 소개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전시회는 '제1장 조선과의 만남', '제2장 조선의 벗이 되어', '제3장 조선

의 미를 전하다.’, ‘제4장 지금도 이어지는 야나기 무네요시의 마음과 시선’ 총 4개의 테마로 구성하여 육필원고 및 사진, 자료, 공예품 등 약 40여 점의 작품을 전시할 예정이다.

전시회 첫날인 9월 14일(수) 16시에는 본 전시회의 개막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개막식에는 주일한국문화원 공형식 원장, 일본민예관 후카사와 나오토 관장, 스기야마 다카시 상무이사, 국외소재문화재재단 김계식 사무총장, 도쿄예술대학 가타야마 마비 교수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하고 개회사와 개최 취지 설명, 내람회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9월 17일(토)에는 재단의 지원을 받아 2년간 진행된 조사연구의 결과를 발표하는 심포지엄도 예정되어 있다. 스기야마 다카시 민예관 상무이사를 비롯하여 가타야마 마비 도쿄예술대학 교수, 세리오 하루나 학술 디렉터, 타시로 유이치로 독쿄(獨協)대학 비상임강사, 함순섭 국립대구박물관장 등 각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4가지 학술 발표와 국립대구박물관 함순섭 관장이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좌담회 1회로 구성된다.


심포지엄은 문화원 한마당홀에서 열리며 유튜브 채널 <온라인 주일한국문화원 www.youtube.com/kcultureinjapan>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발신될 예정이다. 심포지엄에 관심 있는 사람은 문화원 누리집(www.koreanculture.jp)에서 사전 예약을 통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한편 9월 1일부터는 공동주최 측인 일본민예관에서 본 전시회의 관련 기획으로 ‘야나기 무네요시와 조선의 공예 - 도자기의 아름다움에 이끌려’전이 개최된다. 주요 전시품으로는 이번 전시회에서 출품되는 ‘메모란다 스케치북’ 등에 실린 그림들의 실제 도자기 등이 전시된다.

※ 메모란다 스케치북 : 야나기 무네요시가 1922년 이조도자기 전람회 준비를 위해 조선을 방문하면서 그린 스케치

행사는 현재 일본내 코로나 감염이 아직 성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입장 인원 제한, 상시 소독 및 환기, 체온측정 등의 방역 조치하에 개최되며,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www.korean culture.jp)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전시회 개요 및 주요 전시 작품.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주일한국문화원 전시팀장 하성환, 홍보팀장 조은경(+81-3-3357-597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 **행사개요**

- 전시회명 : ‘조선과 그 예술’ 간행 100주년 기념 야나기 무네요시의 마음과 시선 ~ 일본민예관 소장 자료를 통하여 본 조선미술
- 일 시 : 2022년 9월 14일(수) ~ 10월 1일(토) 10:00~17:00
*개막식 : 2022년 9월 14일 16:00~17:30
- 장 소 : 주일한국문화원 갤러리MI(1층)
- 주 최 : 주일한국대사관 한국문화원, 일본민예관
- 학술협력 : 타시로 유이치로, 도쿄예술대학 미술학부 공예사연구실
- 후 원 : 국외소재문화재단, 아사히 신문사
- 내 용 : 야나기 무네요시의 육필 원고, 사진, 자료 그리고 이와 관련된 공예품 약 40여점 전시

□ **전시회 개최 기념 심포지엄 개요**

- 일 시 : 2022년 9월 17일(토) 13:00~17:00
- 장 소 : 주일한국문화원 한마당홀(2층)
- 프로그램 : 종합 사회 - 후루야 마유미(일본민예관 학예원)
 - 개회사
 - 발표① : 스기야마 다카시(일본민예관 상무이사)
‘야나기 무네요시와 광화문’
 - 발표② : 세리오 하루나(도쿄예술대학 학술 인스트럭터)
‘야나기 무네요시와 석굴암’
 - 발표③ : 타시로 유이치로(도쿄대학 비상임강사)
‘야나기 무네요시와 조선 도자’
 - 발표④ : 가타야마 마비(도쿄예술대학 미술학부 교수)
‘야나기 무네요시와 『지금도 지속되는 조선의 공예』’
 - 영상 상영회 : 일본민예관 이야기
 - 좌담회 : 발표자와 특별 게스트와의 좌담회
 - 사 회 : 가타야마 마비
 - 특별토론 : 함순섭(국립대구박물관 관장)

□ **홍보 포스터 및 주요 작품**

		
<p>전시회 포스터 이미지</p>	<p>석굴암 앨범 1916년, 일본민예관 소장</p>	<p>조선의 벗에게 드리는 글 1920년, 일본민예관 소장</p>
		
<p>철제동선상감 십장생문육각필통 19세기 일본민예관 소장</p>	<p>철사용문호 17세기 일본민예관 소장</p>	<p>메모란다 스케치북 1921~22년 일본민예관 소장</p>

□ **관련 전시회 개요**

이번 전시회와 같은 시기에는 아래의 전시회도 함께 개최합니다.

- ① 전시명 : 야나기 무네요시와 조선 공예 - 도자기의 미에 이끌려
 - 기간 : 2022년 9월 1일 ~ 11월 23일
 - 장소 : 일본민예관(도쿄)
- ② 전시명 : 정중동 ~ 한국의 스피릿을 되돌아보다
 - 기간 : 2022년 9월 17일 ~ 12월 18일
 - 장소 : 시가현립 도예의 숲 도예관(시가라키)